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아씨 두리안' 연속 인기 상승세 배경엔 역시 피비 작가! '아이언맨' 윤성빈도 흥린 '아씨두리안'!

2023. 8. 2.



- 피비(Phoebe, 임성한) 작가가 피비했네!
- 문체부터 자막까지 기묘하다! 범상치 않은 내공!
- 독특하고 몽환적인 '아씨 두리안' 묘하게 빨려든다!
- 기묘하고 아름다운 판타지 로맨스 완성 중!
-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 10시 30분 새로운 에피소드 업데이트!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이 걱정의 후반부로 진입할수록 인기 상승세를 타며 주말 밤을 꽉 잡은 대세 드라마에 등극했다.

‘아씨 두리안’은 기이한 월식이 진행되던 날 시공간을 초월해 넘어온 기묘한 두 여인 두리안(박주미 분)과 김소저(이다연 분)의 판타지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첫 에피소드 공개 이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를 모으더니 회를 거듭할수록 매력 경신을 이어가며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다.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이자 ‘아이언맨’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윤성빈도 드라마 ‘아씨 두리안’을 챙겨보는 모습이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으는 등 한 번 보면 빠져들고 마는 ‘마성의 드라마’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

앞서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인어 아가씨’, ‘하늘이시여’, ‘아현동 마님’, ‘신기생던’, ‘오로라 공주’ 등을 통해 찰진 서사와 파격 전개로 남다른 세계관을 선보이며 매 작품 화제를 모은 피비(Phoebe, 임성한) 작가가 집필 이래 첫 도전한 판타지 멜로에서도 신박한 소재와 독특한 전개로 신선한 파장을 몰고 온 게 ‘아씨 두리안’의 인기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피비 작가 특유의 극본 스타일이 예측 불가의 전개와 상상 초월의 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매회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 피비 작가 특유의 개성이 인기를 견인하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전개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피비 작가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독특한 문체는 ‘아씨 두리안’이 공개되자마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비 작가의 전작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 때부터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작가 특유의 어투가 ‘아씨 두리안’에서도 여지없이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사를 뺀 말투로 독특한 어감을 살려 중독성 강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

지난 4회 단치강(전노민 분)과 장세미(윤해영 분) 부부의 말다툼 씬에서도 “중매루 만나서 이십 오년 우리 잘 살았어” “사의찬미 부른 가수 빠져죽지 않았어? 현해탄에” 등 다양한 비유와 독특한 대사를 통해 부부간의 갈등과 감정의 깊은 대립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도도한 집주인 이은성(한다감 분)이 가정부(김남진 분)에게 까칠한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에서는 “있쥬 ‘아무개 엄마’는, 동년배나 편한 사이에 지칭예요” “내가 월급 줘요..고용인에 대한 예의, 격식 차려야 하구 좋은게 좋은거지 받아주면, 선을 넘어” 등 푹푹 끊어지는 피비체로 캐릭터의 심리와 극 전개를 스피디하게 표현하며 흐름을 흥미롭게 변주했다.

또한 문장의 어순을 바꾼다든지 심플한 단어들을 나열한 단순한 표현만으로도 캐릭터가 지닌 카리스마와 기품을 우아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전생에 김씨 부인(최명길 분)이 며느리 두리안이 음식 솜씨를 발휘하자 “삼씨 고운 며느리를 봤구나. 너 정도면(4회)”이라고 표현하며 우아한 칭찬을 곁들이기도 하고, 단치강(김민준 분)은 두리안과 김소저를 엄마 백도이(최명길 분)의 말벗 상대로 보내자는 아내 이은성의 말에 “말벗 필요하게 어머니가 한가하셔?”라고 심플한 문체만으로도 캐릭터가 지닌 냉소적인 분위기를 살리기도 했다.

이렇듯 개성 강한 독특한 표현들은 피비 작가의 장기이자 묘기로 두터운 마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다. 장세미가 “욕하시면 듣구 때리시면 맞을테야요(7회)”라는 대사로 무뚝뚝한 며느리의 돌발 애교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배우에게 부드럽게 대해달라는 조연출 유로(김진현 분)의 말에 주남(곽민호 분)은 “여우들 만만히 보라구?(10회)”라며 여배우 줄임말을 여우에 동시 비유하기도 했다. 후반부 히든 카드로 떠오른 화제의 인물 가정부는 신령한 부채를 얻은 뒤 만난 경비원에게서 개농장에 처량한 신세로 지냈던 개로 겹쳐보이자 “가없구나. 불쌍구나. 멍멍(12회)”이라고 표현해 신기 내린 영험한 분위기를 단숨에 표현하며 12회 섬뜩 엔딩을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단치강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야. 참는데두 한계가 있어”라고 하거나 백도이는 “시에밀 흑사리 껌데기 취급하구 나두 사람이구 감정의 동물야”라고 표현하는 등 격양된 감정을 ‘감정의 동물’이라는 단어에 자주 비유해 독특한 호소법으로 귀에 쏙쏙 박히게 만들었다.

오랜 내공에서 뿜어져나오는 묵직한 대사들은 마치 문학의 한 구절같은 아련함과 애뜻함을 주기도 했다. 두리안이 며느리 김소저가 전생에서 죽은 아들 언(유정후 분)을 간절하게 떠올리며 저승으로 따라갈 마음이었다고 하자 “부부의 정이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애뜻, 절절하구나”라고 말하며 아련한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단등명(유정후 분)이 애인 아일라(김채은 분)에게 자기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들 민망하고 보기 안 좋다고 하자 “존중이 스윗”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피비 작가의 시그니처인 자막 등장도 분위기 전환과 독특한 느낌을 선사하며 극적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다. 백도이가 ‘맞나봐, 어찌 우리 아들..’ ‘등명 애비 흠아비 되면 어떡해..’라며 첫째 아들 단치강을 걱정하는 장면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두리안과 김소저의 돌발 출연에 이은성은 ‘자해공갈단 아냐?’라고 의심하는 자막이 입혀졌다. 두리안과 김소저를 처음 본 단치강은 ‘하늘에서 난리났겠네. 선녀 둘 실종됐다고’라고 속내를 드러내며 능글맞은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30살 연하남 주남을 만나게 된 칠순의 백도이는 애프터 만남을 앞두고 ‘나가? 말어?’라는 자막이 입혀지는 등 인물들의 심리와 갈등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막이 표현돼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듣자마자 귀에 박히는 빨려드는 대사와 독특한 자막만으로도 극적 긴장감을 완벽하게 조율 중인 ‘언어의 마술사’ 피비 작가가 남은 4회 동안 몰고 올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판타지 멜로의 파장은 어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흥미진진한 후반부 입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새 에피소드들을 만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